

10년전과 비교한 전남의 경제·사회 변화상

경제 규모는 늘었지만  
눈덩이 농가부채 '헉헉'

지난 10년간 전남지역은 주택 및 차량수,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적 '몸집'은 크게 불어났지만 사업체 및 경제활동인구 등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주요 지표 추이

인구	1,929,836명	10.8% ↓
경제 활동 인구	920,000명	9.3% ↓
농가 인구	452,324명	32.5% ↓
제조업 종사자	71,477명	6.7% ↓
주택	671,339가구	17.6% ↑
소비자물가지수	104.6	35.8% ↑
GRDP	41조4,560억원	77.1% ↑
자동차	637,887대	63.3% ↑

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1996년에 7만6천604명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7만1천477명으로 6.7% 줄었다.

또 전남은 농가소득 감소 등의 여파로 가구당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운데 최근 물가급등까지 맞물리면서 농가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구 192만·주택 67만채

사업체수 12만개 '영세업'

증가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06년 전남의 GRDP는 41조4천560억원으로 10년새 77.1%나 늘었다.

하지만 이는 포스코광양제철소나 여천산단 등의 생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업체의 규모별 양극화는 되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현재 전남의 총 사업체 수는 12만4천574개로 10년새 1.9% 감소하는 등 영세업체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업

또 지난해 전남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천754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3천196만7천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같은 소득규모는 경북(2천726만9천원)을 제외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농가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농가의 평균 자산은 2억2천4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천934만5천원으로 자산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최고치인 13.1%에 달한다.

여기에 전남은 물가급등으로 인한 교통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은 교통비가 10년새 56.0% 높아진 것을 비롯, ▲교육비(54.2%) ▲수도·광열비(40.1%) ▲식료품(46.4%) ▲보건의료(35.9%) 등의 급등세를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청매실 따는 날' 해남군 산이면 보해 매실농원은 여름철을 앞두고 청매실 500t을 판매한다. 매실은 피부마용과 노화방지,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kg당 5만 원에 판매된다.

해남군 산이면 보해 매실농원은 여름철을 앞두고 청매실 500t을 판매한다. 매실은 피부마용과 노화방지,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kg당 5만 원에 판매된다.

지역민 주식투자 '고유가 불똥'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거래 13% ↓

거래대금도 2조7천억... 3천억 감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 및 대금이 전 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주식 거래량은 4억1천13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4월(4억7천156만주)

에 비해 13.0%(6천143만주) 감소한 것으로, 거래대금도 2조7천821억원으로 10.1%(3천122억원) 줄었다.

광주·전남의 주식거래가 급감한 것은 전달에 비해 매매일수가 3일 줄어든 데다 국제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 상위 5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STX팬오션, 유진투자증권, 기린, SK증권, SH에너지화학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은 하이셀, 에임하이, 삼협글로벌, 이화전기, 디보스 등에 대한 거래가 많았다.

한편 지난달 현재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 및 대금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1%, 1.68%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경남(3.67%, 3.53%), 대구·경북(2.87%, 2.59%) 등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유가 속 지난달 차량 등록 현황

LPG차 급증, 휘발유차 급감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솔린 차량은 지난해 보다 비중이 낮아졌고 경유차는 '제자리 걸음'을 보여 고유가 지속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수요 변화를 나타냈다.

3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총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등록된 전체 자동차 증가한 1천63만7천144대였다. 이 가운데 LPG 차량은 223만3천

215대로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4월말보다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가솔린 차량의 비중은 지난해 4월 말 현재 49.7%였던 것이 올해 4월 현재 49.2%(818만1천485대)로 낮아졌고 경유차는 두 비교 시점 모두 37.0%(올해 대수는 615만2천31대)를 기록,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 1대당 인구는 2.9명, 가구 수는 1.0가구였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230만3천515대(74.4%), 화물차와 승합차는 각각 317만5천633대(19.1%)와 110만5천746대(6.6%)였다.

/연필뉴스

"경유·LPG가격

원가 공개하라"

'5대 거품배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는 3일 지식경제부에 경유와 LPG 등의 공장도 가격과 원가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기획재정부에는 지난해 부가세를 포함한 유류세의 상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국회에 기름값과 휴대전화 등 5대 품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이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올해는 500만명의 서명을 받아 반드시 법 개정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필뉴스

구형 PC도 '쌍쌍'

KT, 학교서버 지원

KT와 어드밴텍테크놀로지스(대표 이사 최영준)는 3일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KT 서버기반 컴퓨팅(SBC : Server Based Computing) 아카데미' 설명회를 갖고 광주·전남 지역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버기반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학교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한 국마이크로소프트(MS)·한국HP와 'SBC 솔루션 및 하드웨어 사업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학교 전산실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고성능 KT서버와 연결, 사용자들이 KT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불러내 사용하고 작성한 문서를 다시 서버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영체제(OS)만 갖춘 '강용PC'도 고급 사양 PC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즉, PC 성능이 낮아도 괜찮아 컴퓨터를 자주 바꾸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선인터넷 서비스

'버스교통정보' 1위

광주, 전국 세번째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버스 실시간 교통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 3~5월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인 윈크(WINC)를 통해 접속한 이용자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1~3위 모두 버스 교통정보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1위는 경기도 버스교통정보로 하루 평균 7천683명이 이용했으며, 2위는 대구시 버스교통정보(3천624명), 3위는 광주시 버스교통정보(1천493명)가 차지했다.

버스실시간교통정보에 이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서비스는 검색포털 사이트 네이버(1천352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콘텐츠(933명) 순이었다. /연필뉴스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가결

노조 찬반투표 75%가 찬성... 파업 가능

금호타이어 노조가 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합원 3천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5.43%인 3천15명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필요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7차례에 걸쳐 사측에 입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

의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입단협에서 기본급 13만4천690원, 정기상여금 50% 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에서 일부 요구사항이 사업장과 무관한 점을 문제삼아 상견례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사측에서 교섭에 응할 경우 얼마든지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Namgol-dang' (남골당) event. The text includes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and '무등산 문변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NYCHE CHAI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green office chair and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chair models. The text includes 'ANYCHE CHAIR' and '기술과 편리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유진테크'.